

	보도자료	역사박물관	관 장 박종수 주무관 박종현
	2020년 7월 24일(금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연락처	033-737-2794

가야금 연주회를 통해 만나는 낯선 친숙함

- 원주시역사박물관, ‘가야금 뉴트로(GAYAGEUM NEWTRO)’ 공연 개최
- 재일교포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초청 공연
- 8월 27일(목) 오후 7시 30분 강원감영

-
- 조선 시대 500년 동안 관찰사가 주재하며 정무를 보던, 강원문화의 중심 강원감영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울려 퍼진다.
 - 원주시역사박물관은 8월 27일(목) 오후 7시 30분 강원감영 선화당에서 재일교포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씨를 초청해 강원감영 해설이 있는 음악회 ‘가야금 뉴트로(GAYAGEUM NEWTRO)’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재일교포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순아 씨는 국립평양음악무용대학교에서 명인들의 연주를 전수받고,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또 다른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명인들에게 사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.
 - <마지막 황제(The Last Emperor)>에서 쟁 연주를 담당했던 중국 장샤오칭, 일본 바바 노부코와 함께 아시아의 금(琴) 연주그룹 고토히메(KOTOHIME)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
 - 덴마크에서 열린 Womex 오프닝 공연, 바르샤바 라디오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 공연, 미국 링컨센터 재일본조선인음악단 연주회 협연을 한 바 있으며, 최근에는 국립극장에서 열린 여우락 페스티벌에 참여했다.

- 한편, 북한에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에 걸쳐 악기개량사업이 진행되면서 12, 13현의 가야금이 19, 21현으로 늘어나 5음계가 7음계로 확장됐다.
- 더불어 전통음악 외에도 대중음악을 편곡해 연주하고 양손을 활용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주곡들이 쏟아져 나왔지만, 농음이 특징인 가야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러한 피아노곡 형식의 곡들은 차츰 지양하게 됐다.
-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친숙하면서도 낯선, 북한의 가야금 연주곡을 선사하면서, 전통음악을 새롭게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.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, 공연 당일 SNS를 통한 실시간 방송을 함께 진행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종수 관장은 “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북한 가야금 르네상스 시대의 연주를 남한의 전통 가야금과 접목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”이라며, “우리의 전통문화가 젊은 층에게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 라고 말했다.
- 문의 : 원주시 역사박물관(033-737-2794)